

“냉해 나주배 농가 소득 700억 감소”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로 나주 지역 배재배 전체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등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나주 배재배 농가들이 과농(破農)의 위기에 놓인 상태라며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호하는 등 구제책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 배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나주배가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로 전체 2354ha면적 가운데 1714ha이상이 50% 이상 열매가 맺지 않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市 현지조사…4월 이상저온에 50% 이상 착과 안돼

재배농들 “빛더미 속 파농 위기…대책마련해 달라”

이번 피해조사는 열매가 맺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인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재배농가 등을 전역 건설 수 있는 파농의 위기로 놓인 상태다.

이 때문에 나주 지역 3000여 과수농가들의 경우 나주배를 매년 7만t 가량을 생산해 1200여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으나 이번 심각한 냉해 피해로 올해에는 생산량이 3만t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700여억원 가량 소득

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 재배농민 K모(나주시 금천면)씨는 “열매 자체가 맺히지 않아 전역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빛더미에 내몰려 있는 만큼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했던 입장이다.”며 뒤늦게라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의 구제책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냉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 상태이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안타까운 입장이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천연기념물 관방제림으로 소풍 왔어요”

소풍나온 유치원생들이 놀이터에 들어가는 담양 관방제림에 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관방제림은 300여년 된 거목들이 3km 구간에 걸쳐 풍자림(風致林)을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돼 있다. (담양군 제공)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으로 탈바꿈

郡 공모사업 선정 2014년까지 32억 투입 탐방로 등 조성

오는 2014년 영산강 시원지(始原地)인 담양군 용면 응연리 일원 ‘가마골’ 생태숲으로 다시 태어난다.

담양군은 지난 28일 응소(사진)와 가마골 일대가 산림청 생태 숲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가마골 생태숲’으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16억원과 지방비 16억원 등 총 32억을 투자해 가마골 일원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훠손된 생태복원과 탐방로·생태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아령장을 운영하며 훠손된 지역의 식생(植生)을 복원하고 산림 생물자원과 수자원을 보호하게 된다.

군은 가마골을 탐방객을 위한 교

육과 체험·탐방로 시설 등을 조성해 자연학습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에코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 가마골 일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마골 생태공원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해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릇을 굽는 가마터가 많다고 해 이를 불여진 담양 가마골은 용주봉(523m)을 중심으로 폭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또 읍·면에서는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개설해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희망근로 인력을 농촌일손돕기 투입해 인력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고령농이나 부녀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기계화율이 낮아 일손이 많이 필요한 채소나 과수 등 원예작물과 밭작물 재배 농가 지원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61-380-3126)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체험학습교사 40명

장성에서 ‘팜 투어’

장성군은 전남도 농업기술원·한국관광공사 호남권협력단과 함께 지난 28일 서부교육청 소속 학교체험학습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농촌체험 연계를 위한 농촌체험 펌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펌투어에 참여한 교사들은 농촌 전통테마마을인 남면 덕섬리 비나리마을과 북이면 오월리 자라뫼마을을 방문해 생태공원과 생태둠벙을 탐방하고 복주머니 만들기·쌀그림 그리기 등을 체험했다.

또한 군 농업기술센터내 사슴밸레·나비·장수풍뎅이 등 곤충표본 1만3103점이 전시돼 있는 곤충 전시관과 도시와 농촌 교류의 산실인 ‘드림카페’를 견학했다.

이번 펌투어 참여 교사들은 상무초·중학교와 농성초등학교·유치원 등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학교교육과 장성군의 농촌체험 프로그램간 연계가 기대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광주근교의 농업군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교교육과 연계한 펌투어 확대와 홍보를 강화해 농촌관광 소득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아토피요? 장흥 우드랜드로 오세요”

편백숲에 친환경 한옥·흙집 등 조성 질환 치유

개장 후 20여만명 찾아 새 휴양·관광지로 각광

장흥군이 양봉산 자락 편백숲에 조성한 ‘우드(Wood)랜드’가 아토피 등 치유를 위한 관광지로 도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장한 우드랜드에 현재까지 모두 2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고 장흥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곳은 산림을 이용한 생태학습 교육을 비롯해 목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관,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해 건축한 한옥·흙집·통나무

집 등이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숙박하면서 휴양을 할 수 있다.

우드랜드에는 삼나무·편백·전통 구들장 시설을 갖춘 한옥 5동과 원형·복층·쌍둥이 구조의 흙집 3동·통나무집 4동 등 모두 12동이 마련돼 있다.

장흥군은 편백숲 우드랜드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편백나무 숲속에 자리잡아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고 휴양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점에 착안, 우드랜드에 아토피 치유실과 소금동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는 등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 ▲소금 마사지실

▲해독실 ▲식상 요법실 ▲치유실 등을 갖춘 ‘아토피 재활·휴양 복합단지’를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자 도시인 ‘로하스타운’과 산업단지 등 주요 사업과 연계한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kykim@

‘농촌일손돕기’ 공무원이 앞장!

선거철 겹쳐 일손부족 심각

담양군 내달 18일까지 추진

6·2 전국지방선거와 희망근로사업 등에 일순을 빼고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담양군 공무원이 나섰다.

담양군은 다음달 18일까지를 ‘농촌

일손돕기 종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농가의 일손 부족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30일 밝혔다.

군은 도심기와 마늘수확·깨파종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한창 바쁜 시기인 농촌인력이 선거운동과 희망근로사업에 나서면서 일손부족난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강진, 탐진강에 은어종묘 20만마리 방류

강진군은 최근 군동면 탐진강 둔치에서 5㎠크기의 어린 은어 20만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이번 은어 방류는 2010년도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제고와 참여를 통해 은어 개체증식에 기여하고 탐진강의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은어종묘 방류는 탐진강 둔치에서 매년 8월이면 개최되고 있는 ‘탐진강 은어축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남 군 해양수산팀장은 “앞으로도 강진의 첫줄인 탐



강과 내수면에 자라·참개·뱀장어 등 다양한 어종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족자원조성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 (나주C 입구)
-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화장. 확정)

길잡이공인증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국
싼

팔 분

1천만 ~ 10억

즉 시
계 약
물물교환도 환영

금산공인증개사

T.881-5688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m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기능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동기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철령면

철령면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첨유 910㎡

■ 특징

-주유소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첨유 허가 특

-미분양에서 광주수도권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철령농공단지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월등 자연녹지 매매

■ 면적: 약 3,870㎡

■ 단 가: 평당 200만원

■ 위 치: 매월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대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화

■ 지가 금등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 놈'

인기폭발 큰놈

인기폭발 큰놈